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통권 제49호
2015 December Vol.49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2
수상소식	3
학회지발간	4
공지사항	5
회비납부	5
신간소개	6

발행일 2015. 12. 30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이강은

권 두 언

그럼에도 불구하고...(올해의 논문상 수상소감을 대신하여)

올해의 논문상이라니.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올 여름 논문 투고하던 때를 떠올려 본다면 더 그럴 수밖에. 2010년 <제국과 기념비>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5월 말까지는 최종결과물인 단행본을 출판해야 했다. 그런데 두어 장이 여전히 미완성인 채였다. 연구재단에서 정해진 기한을 지키기 위해 빨리 책을 완성해야 했지만 스스로 자초한 많은 행사들이 있어 글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단행본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우격다짐하듯 쓴 글이 바로 49집에 게재된 이 논문이다. 정신없는 2학기를 보내느라 미완의 작은 부분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최종결과물이 출판되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될 걸 당시 알았다면 아마 이 논문 또한 “좀 더 완성도 있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에 게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우수논문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지연 (한국외대)

나한테 논문은 늘 이런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과제였다. 지금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발표한 논문들 대부분이 기한에 떠밀려 발표된 글이다. 데드라인 전후의 4-5일을 페인처럼 보내며 벼락치기하듯 쓴 논문들. 심지어 투고 당시에는 심사도 간신히 통과할 만큼 부족한 채로 제출한 적도 있었다. 짧은 기간을 몰두해 쓴 글들이라 한참 시간이 지나 읽어보면 내가 쓴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생소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주제들을 들쭉시키고 다녔지만 그 중 하나도 완전히 내 것과 같은 것이 없다. 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잘 써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런 “좀 더 완성도 있는” 논문이란 나한테 그저 꿈이었거나, 혹은 나쁜 경우 며칠간 틀어박혀 글 쓰는 것이 끔찍해 포기할 때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명분이나 핑계 같은 것이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좋은 논문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나는 나의 몫인 일상의 일과 수업과 연구소의 소소한 프로젝트들과 기타 이런 저런 행사로 바쁠 것이다. 그렇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떠들고 영화를 보거나 공연장을 찾거나 읽고 싶은 책 몇 권 겨우 읽는 작은 즐거움을 포기할 생각도 아직은 없다. 논문은 늘 그 이후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시 난 훌륭한 연구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럭저럭 자신의 몫을 살아가는 학교라는 테두리 안의 생활인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벼락치기 논문쓰기를 멈추지는 못할 것 같다. 여전히 못마땅한 글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좀 더 완성도 있는 논문을 꿈꾸면서 아마 연중행사라도 같은 논문쓰기의 고행을 자처할 것이다. 물론 이런 벼락치기 연구자에게 우수논문상이란 사실 가당치 않다. 주변엔 변함없이 꾸준히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며 삶의 귀감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다만 이 상이 지금껏 논문을 발표해 오면서 단 한 번도 피해가지 못했던 스스로의 미흡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좀 더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이런 저런 글들을 발표해 온 지난 시간에 대해 주시

는 상이라 믿고 싶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연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그간 지켜봐 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신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선후배 연구자들과 선생님들 없이는 이 부족한 논문들조차도 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그 어떤 말로도 부족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함께 공부하고 성장해 온 우리 세대의 연구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들 열심히 잘 해왔다고 스스로 격려하고 싶기도 하다.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2016년을 꿈꾸며, Happy New Year!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9월 12일에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제74차 정례학술 논문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백용식 회원(충북대)이 [희곡의 영화화 연구: A. 체홉과 A. 콘찰롭스키의 <바냐 아저씨>]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고, 최중술 회원(상명대)이 사회를, 김혜란 회원(고려대)이 토론을 각각 맡아 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이 [러시아어 상관관계 구문의 통시적 발전]을 발표해 주셨고, 사회는 최성호 회원(충북대), 토론은 정하경 회원(서울대)이 맡아 주셨습니다.

▶ 10월 17일에 우리 학회가 주관한 한려수교 25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스밈과 짜임: 공존과 상생의 문화 창조를 위한 한·러 교류와 소통]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문학 분과, 어학·통번역 분과, 사회과학 분과, 문화 분과에서 42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4개 학회장과 한려대회 패널로 이루어진 라운드 테이블에서 공동 학회 발전을 위한 건강하고 진취적인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밑바탕으로 삼아 향후 공동 학술대회를 보다 내용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고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2월 19일에는 제75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문학 분과에서 이규환 회원(대구대)의 사회로 이강은 회장님(경북대)이 [막심 코리키 - 혁명과 문화의 패러다임]을, 최진희 회원(안영대)이 [이반 부닌(1870-1953): 저주받은 날에서 생의 기원을 찾아]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고, 오원교 회원(경북대), 최종술 회원(상명대), 이명현 회원(고려대), 김홍중 회원(중앙대)이 토론을 맡아 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의 사회로 홍선희 회원(경북대)이 [러시아어 어휘의 담화표지 되기]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상 소식

▶ 조주관 회원(연세대), 제1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학술상 수상
조주관 회원이 제1회 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조주관 회원은 연구 및 저술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주관 회원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푸시킨 메달(2000)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논문 「테르자빈의 시학에 나타난 바로크적 세계관과 토포이 문제」(2012)로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술로 『러시아문학의 하이퍼텍스트』, 『고대러시아 문학의 시학』(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죄와 벌의 현대적 해석』 등이 있고, 11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학문적 가치가 높은 다수의 러시아 문

학작품을 번역하여 학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시상식은 9월 12일에 열린 제74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상 소감

러시아 문학회는 제 삶의 터전이요 수련장이었습니다. 학술대회 때 학문적 깊이와 도저한 실력을 갖춘 박사들의 열띤 논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문적 성찰 없이 러시아문학의 전문가인양 행세해온 지난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회에서 학술상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천천히 열심히 더욱 연구와 저술활동에 정진하여 진정한 전문가로서 러시아문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문학 작품을 번역 출판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번역되지 않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18세기 러시아 문학작품들을 계속 번역하여 학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소식은 2015년 9월 15일에 한겨레에 소개되었습니다.

▶ 이지연 회원(한국외대), 2015 한국러시아문학회 올해의 논문상 수상

2015 한국러시아문학회 올해의 논문상은 이지연 회원의 [영토와 영광: 러시아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9집)이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의 논문상은 매년 겨울, 그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에 수록된 논문 중 한 편을 선정하여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2015 올해의 논문상은 12월 19일 제75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끝난 후에 수상 회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학회지 발간

▶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0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50집에는 문학, 언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1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김연경 회원(서울대)의 [체호프의 지식인 - 관념 소설과 「6호실」]을 비롯한 논문 9편이, 어학 분야에는 김용화 회원(충북대)의 [러시아어 발전사에서 표준어의 규범화: 변이형의 평가, 선택, 고착] 외 2편이, 문화 분야에는 김민아 회원(서울대)의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 2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 11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1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51집에는 문학, 언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14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박선영 회원(충북대)의 [러시아 '은세기' 시문학 속 '탕자' 모티프의 변주를 비롯한 논문 5편이, 어학 분야에는 권영 회원(성균관대)의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육에서 문화 연구: 언어지역학과 언어문화학을

중심으로]를 비롯한 논문 7편이, 문화 분야에는 심지은 회원(한양대)의 [끝나지 않은 전쟁: 조지아-압하지야 분쟁과 오바 슈빌리의 <제방의 저편>, <옥수수 섬>] 외 1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6년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2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karusist@naver.com)

공지사항

▶ 한국러시아문학회 14기 회장단 선출

한국러시아문학회 14대 회장에 이규환 회원(대구대)이 선출되었습니다. 부회장으로는 심성보 회원(건국대)과 김정일 회원(경북대)이 선출되었습니다.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52집 투고 안내

2016년 2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52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6년 1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러시아어문학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안양대학교 러시아어과 이기주 교수 연구실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2-3720-9266-81 이기주

회비납부

▶ 회비 납부 현황

2015년 12월 28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14~2015)

이강은 회장 2,000,000원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김정일 편집위원장 1,000,000원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변현태 부회장 1,000,000원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이강은, 조주관, 김정일, 백용식, 변현태, 전명선 선생님과 경북대 토대사업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5년 12월 28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정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중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중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욱,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3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5년 12월 28일 현재)**

김민아,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윤영순,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정영주,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

(25만 원) (이상 11인)

▲ **연회비 납부(2015년 12월 28일 현재)**

권영, 기계형, 김윤미, 김수환, 김연경, 김현정, 김형섭, 김희영, 박미정, 변춘란, 서광진, 엄순천, 이정석, 임수영, 정경택, 정하경, 조규연, 홍선희 (이상 18인)

▶ **2016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6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계좌번호는 **의환은행 620-251567-493 이규환**입니다.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신간소개

‘12월 28일 현재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을 올립니다.’



1. 『**문학교수, 영화 속으로 들어가다 5**』 (김규중 지음, 글누림, 2015년 7월 15일 출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저자 김규중 교수가 관심 있게 본 영화에 대한 글을 모은 『문학교수 영화 속으로 들어가다』 제5권. 연대순으로 배치하여 당시 어떤 영화가 상영되었는지, 어떤 내용과 문제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다양한 세상과 인간을 읽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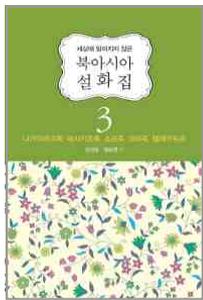
있음은 물론, 영화가 우리 자신과 시대, 그리고 공간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2. 『**사랑 이후의 도시**』 (남영호 외 지음, 라움, 2015년 7월 1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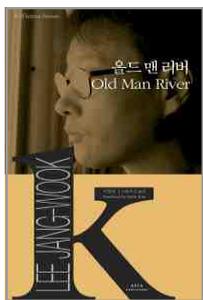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의 연구진은 2013년 5월에는 도시인문학 총서 14권 『도시, 성, 사랑』을 펴냈고,

2014년 4월에는 “사랑 이후의 도시”라는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와 토론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그 근거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지만 끝내 좁혀질 수 없는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번에 엮어 내는 책 『사랑 이후의 도시』는 연구진 안에서 더 이상 좁혀질 수 없었던 차이를, 하지만 단지 그들 안에만 있는 차이가 아니라 오늘날 도시와 사랑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구진뿐 아니라 연구진과 학적 교류를 맺었던 외부 연구자들의 성과도 함께 묶었다.



3.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북아시아 설화집 3: 나가이바크족, 바시키르족, 쇼르족, 코미족, 텔레우트족』 (김성일, 엄순천 지음, 이담복스, 2015년 7월 17일 출간)

서남 시베리아 소수 토착민족인 나가이바크족, 바시키르족, 쇼르족, 코미족, 텔레우트족은 현재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그들이 자라며 들던 이야기를 접하고 전승시키는 것이다. 이 책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한 다섯 민족의 다채로운 설화를 통해 우리가 모르던 소수민족의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과의 새로운 접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4. 『올드 맨 리버』 (이장욱 지음, 스텔라 김 옮김, 아시아, 2015년 8월 3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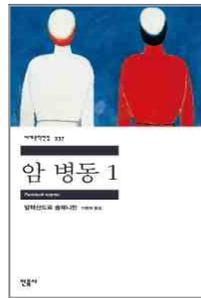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취로 기록될 젊은 작가의 최근작을 엄선하여 소개한 ‘K-픽션’ 시리즈 『올드 맨 리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중부의 소도시로 입양된 알렉스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그곳에

서 알렉스는 지나간 사람들과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리는데...



5. 『의료관광 실무 러시아어: 현직 간호사들을 위한 러시아어 가이드북』 (김상현 지음, 유가이 나탈리야 강수, 신아사, 2015년 8월 30일 출간)

[의료관광 실무 러시아어]는 외래 진료, 입원치료 등으로 한국에 오는 러시아인을 위해 현직 간호사들을 위한 러시아어 가이드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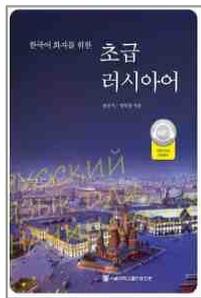
6. 『암 병동 1, 2』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 지음, 이영의 옮김, 민음사, 2015년 9월 11일 출간)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장편 소설 『암 병동』 제1권. 소비에트 시대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그 시대를 증언한 ‘러시아의 양심’ 솔제니친,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대작이다. 악성 종양으로 사망 선고까지 받았던 솔제니친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작품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펼쳐졌던 소련 내부의 혼란과 비극, 나아가 복잡다단한 인간 사회의 자화상을 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다.

1955년 중앙아시아 어느 암 병동. 노인부터 십 대 소년, 유형수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모두 암이라는 병으로 인해 이전에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같은 병실에 머물고 있다. 환자복을 입는 순간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은 사라져 버리고 병과 싸우는 환자로서의 생활을 공유하게 된다. 병과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지난 삶을 반추하며 회한과 슬픔을 느끼고, 누군가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이고 누군가는 욕망과 의지를 불태운다.

스탈린 체제하에서 동료를 배반하며 높은 자리에 오른 이가

있는가 하면, 수용소와 유형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이가 있고, 가족을 모두 잃고도 눈앞의 현실에 고개 숙여 온 이가 있다. 그리고 스탈린이 사망한 지 2년, 그 체제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훑아 가던 고름은 모두에게 암과 같은 커다란 아픔이 되어 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 암 병동에 모여든 이들. 누군가는 병이 나아 두 발로 병실을 나가고 누군가는 죽음을 맞아 병원을 떠난다. 그리고 아직 앞으로의 운명이 정해지지 않은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청소부들도 각자 삶의 짐과 슬픔, 병을 가진 채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의문 속에 삶은 계속되고, 웃음과 사랑도 싹트기 시작한다.



7. 『한국어 화자를 위한 초급 러시아어』 (송은지, 정하경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년 9월 1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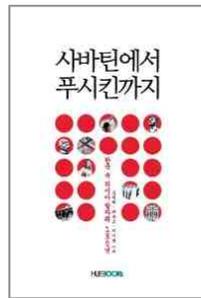
『초급 러시아어』는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어 화자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구조적 차이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학습한 문법과 어휘를 실제 사용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8. 『우크라이나의 역사』 (허승철 지음, 문예림, 2015년 9월 1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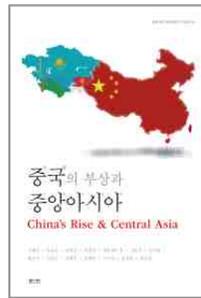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문화의 발상지이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와 4,500백만이 넘는 인구,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가장 위중한 국난을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 한 차원 높은 국력을 가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내학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문 연구자의 풀이 작았고, 그러다보니 객관

적이고 심도 깊은 우크라이나 연구는 미흡했던 편이다. 우크라이나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치문화, 국민성, 국민의 지향 점 등의 차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이나 일반 독자를 위해 우크라이나 역사를 읽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한 입문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외교관 생활을 마친 후 대학으로 돌아와 매년 우크라이나 지역학을 강의하면서 한 학기 강의에 맞는 교재의 필요성도 느꼈다. 역사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스스로 책을 쓰는 모험을 하기 보다는 그간 권위 있는 학자들이 저술한 책을 번역하고 정리하여 편집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편역서로 이 책을 꾸미게 되었다.



9. 『사바틴에서 푸시킨까지: 한국 속 러시아 발자취 150년』 (김현택, 라승도, 이지연 지음, HUEBOOKS, 2015년 9월 3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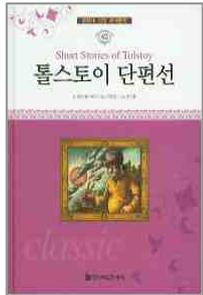
『사바틴에서 푸시킨까지』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를 정치, 인문,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여행자들의 한국 방문을 통해 형성된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에서부터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 당시 서울 중심가에서 개최된 러시아 시인 푸시킨 동상 제막식 같은 상징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50년의 양국 관계 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장면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책이다.



10.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신범식, 양승조, 성동기 외 지음, 진인진, 2015년 10월 31일 출간)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조망한 최초

의 학술연구서로서, 해당지역과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 맥락과 함께 현재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1. 『톨스토이 단편선』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은경 옮김, 한국헤르만헤세, 2015년 11월 1일 출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물론 주요 대학과 기관 등에서 추천한 세계적인 문학 작품을 소개한 「명문대 선정 세계문학」 시리즈 『톨스토이 단편선』. 교과서 수록 작품 및 주요 대학 및 기관 추천 작품을 총망라하여 수능 및 내신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두와 끝에는 ‘작가 알아보기’, ‘작품 이해하기’ 등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친절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풍부한 화보와 사진 자료를 통해 문학적 풍미를 느껴보세요.



12. 『알렉산드르 소쿠로프: 폐허의 시간』 (이지연, 홍상우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5년 11월 16일 출간)

알렉산드르 소쿠로프(Alexandr Sokurov)는 러시아 영화의 전통을 계승하며 흔히 안드레이 타르콥스키(Andrei Tarkovsky)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평가되는, 현존하는 러시아 최고의 시네아티스트다. 서문을 대신한 1편의 글과 알렉산드르 소쿠로프의 삶과 작품을 다룬 9편의 글로 구성된 이 책은 감독 이전의 알렉산드르 소쿠로프의 삶의 궤적에 대한 추적에서 시작한다.

소쿠로프는 [인간의 외로운 목소리]를 연출한 이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넘나들며 ‘엘레지’, ‘죽음 3부작’, ‘권력 4부작’ 및 [러시아 방주] 등을 통해 러시아라는 문화의 유산, 예술과 예술가, 삶과 죽음, 절대적인 권력자의 표상을 빌려 영화적 ‘역사’를 구축해왔다. 이 책은 소쿠로프의 작품을 통해 소쿠로프

영화에 담긴 철학적 주제와 예술적 성취에 대해 논하고 있다.



13. 『자유: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배운다』 (석영중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5년 11월 27일 출간)

노어노문학자 석영중 교수가 오랫동안 골몰해온 ‘자유’를 주제로 집필한 『자유』. ‘나는 자유로운가?’, ‘자유란 무엇인가?’, ‘왜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도스토예프스키에게 구한다. 우리로 하여금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라고 자문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그런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추구하게 해준다.



14. 『알파미시』 (파질 울다시-오글리(구연) 지음, 최종술, 백승무, 레프 펜콥스키 채록 및 옮김, 이영진 감수, 아시아, 2015년 11월 30일 출간)

『알파미시』는 우아한 단순함과 은은한 위엄, 가부장적 인간미 등을 지닌 세계적인 영웅 서사시의 훌륭한 모범이자 표본 같은 작품이다. 민족의 독립과 통일, 이상적인 영웅에 대한 민중의 동경, 사회적 정의실현 등 영웅 서사시의 일반적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편, 우즈베크 민족의 기질과 전통, 일상적 삶과 풍습 또한 풍부하게 묘사되고 있다.



15. 『다시 소설이론을 읽는다: 세계의 소설론과 미학의 쟁점들』 (변현태, 김수환 외 6명 지음, 창비, 2015년 11월 30일 출간)

이 책은 계간 『창작과비평』에 연속기

획(2013~14년)으로 게재된 원고를 수정, 보완하고, 새로 집필한 원고들을 더해 묶은 것이다. 수록된 글들은 저마다 문학이론, 미학, 문화론까지 포괄하는 넓은 외연을 보이지만 ‘소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삼아, 외국 이론가들의 논의를 촘촘하게 다시 읽으며 소설의 역량과 지평을 가능해보고 있다. 이같은 기획은 한국문학의 담론장에서 몇년간 주요한 논쟁 중 하나였던 ‘근대문학 종언론’과 그 속에 함축된 근대 장편소설의 역량이 소진되었다는 주장에 응해, 소설의 가능성을 짚어내고 확장한 이론적 노력들을 차분히 살펴봄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종언론’은 ‘문학과 정치’ 논의로 돌연 옮겨갔는데, 무엇보다 이 책의 글들은 이처럼 하나의 논쟁이 다른 논쟁으로 옮겨갈 때 생기는 단절과 망각을 고찰하려는 의지가 더 크다 하겠다. 단절과 망각은 잇따르나 담론장은 자기 역사를 구축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고, 이는 외국 이론을 들여오고 참조하는 적절한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를 더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고민과 실천의 하나로서, 각 필자들은 저마다 담론의 현재성에 연루된 긴장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지속하면서, 앞선 담론과 논쟁이 남긴 실마리와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며 오늘의 비평이 맞닥뜨린 질문을 진지하게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외국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한편으로, 한국문학의 담론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로 쓰인 이 책은 소설의 주요 이론들 및 미학의 쟁점들을 짚어보고, 나아가 한국문학의 주요 논의들의 좌표를 그려보는데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16. 『유럽피아나: 짧게 쓴 20세기 이야기』 (파트리크 오우르제드니크 지음, 정보라 옮김, 열린책들, 2015년 11월 30일 출간)

지난 25년간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읽힌 체코 소설 『유럽피아나』. 오늘 날 가장 인기 있는 체코 작가 중 한 명인 파트리크 오우르제드니크의 대표작으로 역사적 사실의 단편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해 낸 한 편의 독창적인 예술작품이다. 화장실 휴지의 발명부터 인종 학살의 끔찍한 참상까지 20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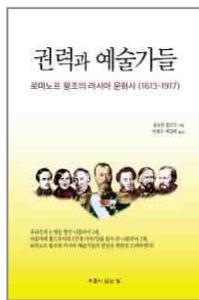
유럽의 역사적 기억들을 파고든다.

이 작품은 한 세기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중요한 통계자료에서부터 어느 이름 모를 개인의 사소한 일화까지 20세기 유럽 역사의 크고 작은 희비극을 중흥무진으로 어지럽게 가로지른다. 역사의 단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며 변주해 내며 저자는 의도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독특한 문체로 온갖 이론과 이념이 난무하며 허황된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20세기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17. 『음식과 성: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로널드 르블랑 지음, 조주관 옮김, 그린비(그린비라이프), 2015년 12월 15일 출간)

이 책은 ‘음식’과 ‘성’에 대한 욕망과 죄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작품이 지닌 대조적인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두 대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19세기 이후의 러시아 문학, 나아가 전 세계의 문학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식욕과 성욕이 어떻게 묘사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18. 『권력과 예술가들: 로마노프 왕조의 러시아 문화사(1613-1917)』 (솔로몬 볼코프 지음, 이대우, 백경희 옮김, 우물어있는집, 2015년 12월 21일 출간)

『권력과 예술가들』은 궁중의 음모와 스캔들 그리고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애정사 등에 주목함으로써 러시아 황실과 문화계 주요 인사들의 긴밀하면서도 원초적인 관계를 심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제정 러시아 문화의 초석을 놓은

푸쉬킨, 고골, 투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글린카, 차이콥스키, 이동파 화가들, 브롤로프, 이바노프 등 많은 예술가들이 신화화되고 공식화되는 동안 문화 권력에 의해 문혀지거

나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예술가들과 권력 사이의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생생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대학교 러시아어과 이기주 교수 연구실 내 (사무국)
TEL: 031) 467-0801 FAX: 031) 467-0909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